

현대 중국어 통사 사동의 논항과 격 연구*

이 수 진** · 권 연 진***

<目次>

I. 머리말	IV. 통사 사동의 복합 술어
II. 기존의 논의가 가지는 문제점	형성과 논항
III. 복합 술어의 구성 원리	V. 마무리

I. 머리말

중국어 통사 사동 구문(NP1+使(V)+NP2+VP)¹⁾의 논항 구조 분석은 피사동주의 논항으로서의 지위와 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동 행위에 대한 대상이자, 피사동 행위에 대한 행위주로서 피사동주는 이중 동사 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 사동 구문의 논항 구조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교수

1) 중국어 사동 표현의 분류 기준과 분류 형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을 제안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사동표지사 ‘使’, ‘讓’, ‘叫’, ‘命’ 등이 겹어식 구조를 형성하는 구문을 통사 사동으로 분류하여 본고의 범위를 해당구문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 i) a. 使(/讓/叫) : <행위주, 명제>
 b. 使(/讓/叫) : <행위주, 피행위주/대상, 명제>

본고에서는 중국어 통사 사동은 i b)의 논항 구조를 실현한다는 가정 아래 사동사 ‘使(/讓/叫)’가 후행하는 VP와 복합 술어를 형성하여 피사동주 NP2에게 대격을 부여한다고 제안한다. Chomsky(1986) 역시 사동 구문과 같은 구조 내에서 NP2는 후행하는 VP와 더불어 하나의 구성 형식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동사 V와 VP가 형성하는 복합 술어의 논항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사동 행위를 표상하는 VP는 피사동주와 의미적 주술 관계를 이루기는 하지만 통사적으로는 사동사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므로 먼저 사동사와 복합 술어(complex predicate)를 이룬 다음 피사동주 NP2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본고는 해당 구문에 대한 기존의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고 각 견해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복합 술어를 이용한 분석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한다.

II. 기존의 논의가 가지는 문제점

중국어 통사 사동이 i a)의 논항 구조를 실현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사동주 NP2의 논항 지위와 격 문제는 두 가지로 이론으로 설명된다. 명제 논항을 내포문으로 보고 NP2가 후행하는 VP에 의해 주격을 부여받는다든 견해와 중국어 통사 사동 구문이 영어의 ECM(Exceptoinal Case Marking: 예외적 격표시)구문과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NP2가 ‘使(V)’에 의해 대격을 부여받는다든 견해이다.

우선 명제 논항을 내포문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실제로 사동 구문에서 피사동주와 피사동 행위가 형성하는 구문을 내포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어의 사동 구문에서 비교적 자주 논의되는 부

분이다. 한국어는 피사동주의 다양한 격 표시가 뚜렷하며, 외현된 격에 따라 해당 문장의 구조 또한 상이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기혁(2009:102)은 피사동주의 격에 따라 한국어의 사동 구성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 1) a. [나는 [그가 오게] 했다] → 내포문을 포함한 복문
- b. [나는 그를 [오게 했다]] → 보조동사 구성의 단문

a)와 b)의 구조적 상이함이 사동 구성의 격 표시로 드러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확장 구조를 통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 2) 엄마가 영희가 동생을 안게 했다.
 - a. → 엄마가 힘없는 목소리로 [영희가 동생을 안]게 했다.
 - b. → *엄마가 [영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동생을 안]게 했다.
 - c. → 엄마가 [영희를, 힘없는 목소리로, 동생을 안]게 했다.

위의 예에서 보듯 사동사 ‘-게 했다’를 수식하는 ‘힘없는 목소리로’가 2b)의 위치에 있을 때 비문을 형성하는데, 모문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는 내포문 안에 위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희가 동생을 안’은 내포문을 구성하고 ‘영희가’는 내포문의 동사로부터 주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c)는 ‘영희를’이 모문의 동사로부터 대격을 받기 때문에 모문을 수식하는 부사어가 어디에 위치해도 정문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한국어 사동은 피사동주가 주격으로 표시될 경우 내포문의 동사로부터 주격을, 대격으로 표시될 경우 모문의 동사로부터 대격을 받는 것으로 정리되기도 한다. 영어와 중국어는 한국어와 또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영어의 make 사동구문에서 NP2는 언제나 대격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대명사 전환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중국어는 외현적 격 형태가 없으므로 격 형태만으로는 내포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3) a. You really got John going.
 b. → You really got him going.
 c. → 내가 정말 John을(/그를) 가게 했구나.
- 4) a. 這次事故讓我來到這裏了。
 b. → 이번 사고가 나를(내가) 이곳에 오게 하였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V와 NP2 사이에 다른 요소가 삽입될 수 없다는 점이며 이는 사동 구문의 내포문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 5) a. 老師說[明天學生們都參加運動會]。
 b. *老師讓[明天學生們都參加運動會]。

5a)는 내포문 전체를 목적어로 가지므로 ‘明天’이 V와 NP2 사이에 위치해도 상관없지만 5b)가 비문인 이유가 ‘明天’의 위치 때문임을 고려할 때 ‘讓’과 ‘學生們’이 보다 긴밀함을 예측할 수 있다. 동사와 후행하는 명사(구)가 다른 성분의 삽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동사가 목적격을 부여할 때 나타나는 특성인 인접조건(Adjacency requirement)에 따른 것이다. Stowell(1981:113)은 명사구가 격을 가지려면 격 할당자에게 지배되는 동시에 바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²⁾

- 2) Adjacency Condition(Stowell, 1981:113)
 ; Case Assignment under government in the configuration [...a β] or [... β α], a Case-marks β, where
 i) a governs β and
 ii) a is adjacent to β, and
 iii) a is [-N]
- 이 인접조건은 Chomsky(1986, 이선우 역, 107쪽)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그는 격 이론에 대한 하나의 원리로 격인접(case adjacency) 원리를 제시하면서, 격이 형태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 격 표시된 요소는 자기의 격 부여자(몇몇 차이는 있지만)에 인접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사가 NP와 PP를 보어로 취할 때 (동사로부터 격을 받는) NP는 동사에 더 인접하게 위치한다고 한다.
- put [the book] [on the table]
 *put [on the table] [the book]

- 6) a. John can speak English fluently.
 b. *John can speak fluently English.

통사 사동과 형식적으로 유사한 believe류 동사의 NP2 또한 그 격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는데, 해당 NP2가 believe에 대격을 받는다는 가정에 대한 여러 진단적 분석 중 하나가 바로 인접조건이다.

- 7) Mary believe George to be the culprit.
 → *Mary believe, of course, George to be the culprit.

한국어의 경우 격조사가 형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2c)와 같이 V와 NP2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격을 실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영어는 대명사의 NP의 격 체계가 결핍되어 있고 중국어는 대명사를 포함한 모든 NP의 격이 외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인접 조건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使(/讓/叫)’가 내포문을 명제 논항으로 취함으로써 NP2가 VP로부터 주격을 받는다는 견해보다, 오히려 인접 조건의 원리에 따라 NP2가 ‘使(/讓/叫)’으로부터 직접 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비교적 더 타당하다고 느껴진다.

만일 이 인접조건을 수용한다면 VP로부터 ‘행위자’의 의미역은 받으면서 격을 받지 못해 모문의 V에 의해 대격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believe 동사류의 예외적 격표시(Exceptoinal Case Marking:ECM)에 관한 기술 원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楊大然(2003), 李靑(2009), 譚娟(2009) 등은 사동사 ‘使(/讓/叫)’가 ECM을 일으키는 동사에 해당하며, 사동구문을 비롯한 겹어문에서 나타나는 동사들이 영어의 ECM동사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believe류의 격 현상을 ECM으로 분류하면서 여러 해석 기제가 적용되곤 했었는데, 그 중 내포절의 주어가 상위절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하는 인상 규칙에 의한 분석이 비교적 보편적이었다.³⁾ 그러나 이 인상 규칙은 두

3) Postal(1974)의 주장이다. 주어 인상이라는 용어는 내포문의 주어가 모문의 목

가지 이유로 수용되지 못한다. 첫째, 주어-목적어 인상 원리에 따르면 NP 2는 시제구 TP에서 행위자의 의미역을 부여받고, 격자질의 해석을 위해 자리 이동한 다음 피행위자(/대상)의 의미역을 다시 받는데 이로 인해 결국 두 개의 의미역을 가지게 된다. 이는 하나의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만을 가진다는 의미역 기준(Theta-Criterion)을 위반하게 되므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ECM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 논의에서 이 의미역 기준 위반은 ECM에 대한 첫 번째 반론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둘째, 투사원리(Projection Principle)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투사원리는 어떤 요소가 특정 위치에서 ‘이해’되는 것이라면 외현적 범주로든 혹은 공범주로든 통사표시에서는 그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Chomsky, 1986, 이선우 역, 108쪽), NP의 의미역 관계가 모든 통사구조에 반영되어 어휘적 정보가 통사적으로 표출되어야 함을 말한다.

- 8) a. the man I saw
b. → the man [I [vp saw e]]

적어로 ‘인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예외적 격표시는 상위문 동사가 예외적으로 내포문의 성분에 격을 할당한다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를 가진다. 그는 수동문, 재귀대명사, 상호대명사의 예를 통해 인상의 근거를 제시한다.

- i) 수동문
a. Jack believed Joan to be famous.
b. *(for) Joan to be (have been) famous was believed by Jack.
c. Joan was believed to have been famous.
ii) 재귀대명사
a. Jcaki believed (that) he_i was immortal.
b. *Jcaki believed (that) himself_i was immortal.
c. Jcaki believed himself_i to be immortal.
d. *Jcaki believed him_i/he_i to be immortal.
iii) 상호대명사
a. *They believed (that) each other to be honest.
b. They believed each other to be honest.

즉, ‘see’를 타동사라고 할 때 D-구조, S-구조, 혹은 LF에서 vp의 보충어로 표시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만일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요소가 없다면 공범주의 형태로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8a)의 구조적 표시는 8b)가 되고, 이 때 공범주 e는 see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만일 4)의 예가 아래와 같이 이동되는 것이라면 모든 어휘 요소가 보문 내의 모든 명사구에 의미역을 할당한다는 투사 원리에 따라 인상된 명사구가 남긴 흔적 ti도 의미역(행위자)을 받고 인상된 ‘我’도 의미역(대상)을 받는데 이들은 동일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각기 다른 두 개의 의미역을 받게 되는 것이다.

4) a. 這次事故讓我來到這裏了。

[TP 這次事故 [vP 讓 我i [TP ti 來到這裏了]]]

이러한 투사 원리 위배 또한 주어-목적어 인상 원리의 문제점이 된다.

이후 최소주의 이론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데 바로 병합(Merge)과 이동(Move) 조작에 일치(Agree)라는 조작을 추가하는 것이다. 어휘 항목(lexical item)이 포함하는 자질(feature) 중에 언어 수행 체계에 의해 해독될 수 있는 자질을 해석성 자질(interpretable feature)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자질을 비해석성 자질(uninterpretable feature)이라고 한다. 하나의 문장이 완전히 해석되기 위해서는 해석성 자질만을 포함해야 하고, 비해석성 자질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앞서 언급한 ‘일치’는 비해석성 자질을 삭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삭제하기 위해 비해석성 자질 P(probe; 탐침)는 그 성분통어 영역 안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등한 비해석성 자질 G(goal; 목표)를 찾는데 이 때 이들은 탐침-목표(probe-goal)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두 요소가 탐침-목표의 관계로 조화(Matching)를 이루게 되면 비해석성 자질 P는 값이 정해지면서 삭제되고 목표 G를 내포하고 있는 요소가 어떤 비해석성 자질 G'를 가지고 있다면 이 G' 역시 값이 정해지면서 함께 삭제된다는 것이다. ECM구문의

NP2도 비해석성 격-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NP2는 목표(G)가 될 수 있고, V는 이를 찾아가는 탐침(P)이 될 수 있다. 이에 楊大然(2003: 368~370)은 영어와 중국어의 ECM현상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면서, V와 NP2를 비해석성 자질을 지닌 요소로 판단하고 그들을 탐침과 목표의 관계로 해설한다.

- ii) a. believe : <행위주, 명제>
 → Mary considers [AP Bill intelligent]
 b. 使/讓 : <행위주, 명제>
 → 虛心使[vP 人進步]
 → [TP 虛心 [vP 使 人i [TP ti 進步]]]

楊大然(2003:369)은 ‘使’를 ϕ 자질을 지닌 타동사적 경동사로 규정하고, ‘NP2(人)’를 비해석성 격 자질을 지니는 ‘목표’로 설정한다. 즉, 시제구 TP(人進步)의 명시어(人)의 격 자질은 TP의 중심어(進步)와 점검할 수 없으므로⁴⁾ TP의 명시어 위치에서 VP의 명시어로 인상 이동하게 된다. 이 때 경동사 ‘使’는 비해석성 자질을 지닌 요소로서 탐침이 되어 성분 통어하는 목표를 찾게 된다. 그 목표가 바로 ‘人’으로, ‘使’는 목적격으로서 ‘人’이 가지는 비해석성 격 자질을 해석하고 삭제하며, ‘人’은 경동사 ‘使’의 비해석성 자질을 해석하고 삭제하게 된다. 이 때 ‘人’은 격 점검을 위해 vP의 Spec 위치로 비명시적 이동을 하여 비해석성 자질을 삭제하고 대격이 된다. 그 다음 타동사적 경동사는 vP의 명시어로 외부 논항 ‘虛心’을 투사하여 ‘虛心’은 시제구 TP의 명시어 위치로 인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人’의 의미역은 후행하는 XP로부터 받지만 그 비해석성 자질을 경동사 ‘使’와의 점검 및 삭제를 통해 대격으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Postal(1974)이 ECM구문을 주어-목적어 인상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4) Chomsky(2000)는 ‘believe’ 동사 뒤의 부정사절을 보문소구 CP가 결합된 시제구 TP로 보았는데, 楊大然(2003) 역시 이 견해에 따라 ‘使’에 후행하는 구문을 TP로 본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점(의미역 기준과 투사원리 위배)이 지적된 이래 S'삭제, Agr⁰의 점검을 위한 비명시적 이동, 초점 구성설 등 NP2의 인상 혹은 이동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楊大然(2003)의 분석 역시 그 중의 하나로 이러한 분석은 의미역 기준이나 투사 원리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타당성을 가지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첫째, 'NP2(人)'이 의미역은 받으면서 격은 받지 못하는 이유 즉, 왜 비해석성 자질을 가지는 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다. 후행하는 TP를 결손이 있는 시제절로 보아 격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TP에 시제 운용소가 첨가되어도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 여전히 결손시제를 가지는 TP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 9) a. 他的話讓我已經開始相信這一切。
- b. 媽媽的祈禱使你以後不再遭到同樣的災禍。

둘째, 영어의 believe, consider는 소절(small clause)을 논항으로 취할 수 있으나 '使'는 소절을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 '명제 내용을 가지고 있으나 INFL 요소가 결여된 주어와 술부의 한 쌍'이라는 소절의 정의⁵⁾에 따르면 believe류 동사나 사동사 '使'에 후행하는 명제를 모두 소절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사동사 '使(/讓/叫)'는 아래의 예에서 보듯 오히려 목적어와 목적보어를 취하는 persuade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10) a. I can believe(/consider) [that].
- 11) a. 這次事故讓[我][來到這裏了]
- b. → *這次事故讓[來到這裏了]
- c. → *這次事故讓[我]
- d. → *這次事故讓[什麼]?

5) 소절은 주술관계의 형태로 의미적으로는 절(clause)에 속할 수 있으나 어형적 측면에서는 비정형적 연계관계(non-finite nexus relation)로서 동사적 기능 범주가 결여되어 있는 명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 12) a. I persuaded [him] [to invite Mary].
 b. → ?I persuaded [him].
 c. → ?I persuaded [to invite Mary].

즉, ‘使’는 NP2나 XP 하나만을 논항으로 취할 경우, 혹은 이들을 하나의 구성형태로 묶어 논항으로 취할 경우 의미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使’는 ‘使: <행위주, 피행위주/대상, 명제>’의 논항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어휘적 의미의 결핍으로 허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중국어 사동 표지사는 단독으로 격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우선 후행하는 VP과 결합하여 복합 술어를 형성하여 기능하게 되며, 이를 VP위에 또 하나의 VP를 설정하는 동사 패각 구조(VP shell)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讓’이 ‘我’와 ‘來到這裏’를 모두 보충어로 가져 삼항 분지를 이루게 되면 병합은 이항 조작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어긋나게 되지만 동사 패각 구조를 이를 경우 이항 분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使’의 논항으로 행위자 외 대상과 명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분지 구조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삼분지 구조 자체가 분석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단일 보충어 가설과 더불어 모든 구구조는 이분지로 나눈다는 X-bar 이론을 따르고 동시에 상술한 동사 패각구조가 경동사 v와 VP의 복합적 서술 형태에 대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주의 통사론에서는 삼분지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P2와 XP를 주술관계를 내포한 소절 범주로 가정하는데 ‘使(/讓/叫)’는 어휘 범주적 성격이 약하여 이와 같은 소절 범주 설정은 타당하지 않다. 다음 장에서는 복합 술어가 구성되는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중국어 통사 사동 구문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점검한다.

Ⅲ. 복합 술어의 구성 원리

통사 분석에서 복합 술어⁶⁾는 대체로 두 가지의 술어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하다’ ‘have’ ‘take’와 같은 경동사(혹은 기능동사)와 서술성 명사가 결합하여 단일어 동사와 같은 의미를 만들어 표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다’ ‘생각을 하다’ ‘have a walk’ ‘take a kick’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각각의 논항구조를 가지는 두 개의 술어가 마치 하나의 술어인 것처럼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먹고 싶다’ ‘먹게 하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복합 술어라는 하나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후자의 예에서 보이는 ‘-고 싶다’ ‘-게 하다’가 전자의 경동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어휘 개념보다는 기능적 측면을 나타내며, 술어의 주요 의미는 전자의 경우 서술성 명사가, 후자의 경우 ‘먹-’이라는 어근 형태가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대체로 복합 술어는 전자, 즉 V+NP에 대해 주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으나, V+V형태에서 문장의 논항 구조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V+V형태의 복합 술어에 관한 연구 또한 많아지고 있다.

- 13) a. 읽다 → 나는 책을 읽는다.
b. 읽어주다 → 나는 그에게 책을 읽어준다.

김종복·양재형(2004)은 이 때의 경동사를 조동사로 보고 이를 조동사 복합술어로 설명한다. 실제로 경동사는 양상(modality)이나 상(aspect), 시

6) 복합 술어(Complex Predicate)는 복합 동사(Complex verb) 혹은 합성 동사(Compound Verb)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복합 동사(합성 동사)라는 용어는 주로 위의 진술에서 두 번째의 경우를 일컫는 경우가 많다. ‘-고 싶다’ ‘-게 하다’를 통사 층위가 아닌 동사의 형태론적 요소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를 동사로 지칭하는데, 중국어의 경우 이러한 술어 구성 형태를 단어 조성 방식의 형태론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통사적 층위에서 복합 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체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중국어에서도 하나의 동사가 다른 동사와 결합하는 술어 형태를 복합 술어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박정구(2004)는 동사와 방향동사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방향보어를 복합 술어로 보고 있으며 Huang(1992:이창호 역, 2001)은 상태보어 구문을 복합 술어로 분류하고 있다.

Chomsky(1986:이선우 역, 116~117쪽)도 의미역 준거나 투사 원리에 의하여 ‘목적어로의 상승 규칙’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래 논항 John의 격은 이전의 논의(Chomsky, 1975)에서 제시한 바 있는 복합 술어의 개념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14) a. we held [a John responsible]
 b. we made [a John leave]
 c. we consider [a John intelligent]

Chomsky(1975:478~484)는 아래 구문들을 ‘VP₁→V NP P’의 여러 형태로 보고 V와 P가 복합 동사(compound verb)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 15) a. V NP PP
 the detective brought him in → bring in
 b. V NP Predicate
 they consider John(/him) a fool → consider a fool
 c. V NP₁to be Predicate
 they know him to be a fool → know-to be a fool
 d. V NP₁NP₂
 they elected him an officer → elect-an officer

그리고 아래의 수동화 변형을 통해 위 15)내의 NP가 왜 ‘him’, 즉 대격

7) 경동사와 조동사를 동일한 범주로 설명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하며 그 분류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논지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이 되는지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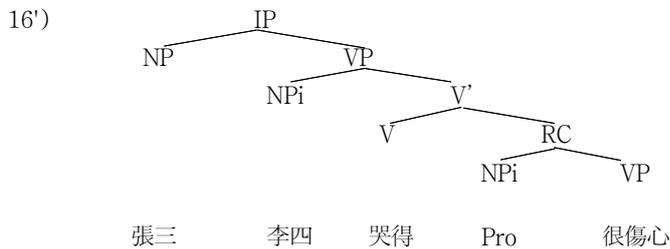
- 15') a. → he was brought in by the detective
- b. → John/(He) is considered a fool by them
- c. → he is known to be a fool
- d. → he was elected an officer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14)의 예에서 ‘held-responsible’, ‘made-leave’, ‘consider-intelligent’를 복합동사로, ‘John’을 목적어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 동사의 설정과 수동화 변형을 통한 대격 부여 증명 등의 분석 방법은 중국어의 여러 특수 구문 분석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Huang(1992:이창호 역, 2001)은 중국어 결과구문을 ‘인상’과 ‘ECM/소절’로 분석하는 것을 반대하고 복합 술어와 합성 의미역 할당(compositional theta-role assignment)을 활용한 ‘통제/주술관계’로 분석할 것을 주장한다.

16) 張三哭得李四很傷心。

그의 분석에 따르면 ‘李四’는 ‘很傷心’의 주어가 아니라, 복합 술어인 ‘哭得Pro很傷心’의 목적어이며 아래의 D-구조를 가진다.



상기한 구조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복합 술어의 형성과 그에 따른 의미역 관계이다. V는 결과절(RC)을 선택하여 의미역(결과(result) 혹

은 도달점(goal))을 표시하고, 이 V가 RC와 복합 술어를 형성하여 V'로 NP '李四'를 선택하여 의미역(수동자(patient) 혹은 대상(theme))을 표시하고, VP는 주어 NP '張三'을 의미역(행위자(Agent)) 표시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李四'는 RC의 주어가 아니라 VP의 Spec으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위의 D-구조 형태로 그대로 표면화되지 못하는 데 이 위치에서는 '李四'가 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어 구조격은 어순에 의해 부여받게 되는데 대체로 왼쪽의 V가 후행하는 NP에 대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르면 '李四'는 외재 목적어임에도 대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격여과에 걸려 비문이 된다. Huang(1992)은 이 격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아래 세 가지를 제안한다.

iii) a. 격표지 把를 삽입한다.

→ 張三[vp 把李四_i [v' 哭得 [RC [Pro_i 很 傷心]]]]

b. 哭得가 격을 부여할 수 있는 V로 이동한다.

→ 張三 哭得 [vp 李四_i [v' t_v [RC Pro_i 很 傷心]]]

c. 수동화를 통해 李四를 IP의 Spec위치로 이동한다.

→ 李四_i 被張三 [vp t_i [v' 哭得 [Pro_i 很 傷心]]]

16)의 'V得RC'구문이 사역의 의미 기능도 가진다는 점에서 Huang의 분석은 중국어 통사 사동 구문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사동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사동주가 사동행위를 통하여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결과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사동행위에 해당하는 원인 사건(張三哭)과 피사동행위에 해당하는 결과 사건(李四很傷心)을 가지는데 16)의 예 또한 이러한 논항과 사건구조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사동 표지사 없이 통사적 구조로 논항간의 사역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구별될 따름이다. 본고에서는 이보다 더욱 전형적인 사동 구문, 즉 사동 표지사로 구성된 사동 구문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은 '복합 술어' 개념을 활용한 '통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使'는 경동사에 해

당하여 단독으로 논항을 취하거나 격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절과의 결합을 허용하는 개념적 도구로 복합 술어를 활용하고, 통제 이론은 이 결과절에 PRO의 설정을 허용하여 NP가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해주며 이중의 격과 의미역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IV. 통사 사동의 복합 술어 형성과 논항

16')의 D-구조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Huang(1992)은 iii)의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b)의 방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17) 這次事故讓_{VP}我_i來_{V'}到_{TV}這裏_{RC}。

→ [IP 這次事故_{VP}讓_{VP}我_i [V' tv [RC PRO_i 來到這裏]]]]。

경동사 '讓'은 '(PRO를 가진)來到這裏'와 복합 술어를 형성한 다음 '我'에 대격을, '這次事故'에 주격을 부여하기 위해 이동한다. 이때 PRO는 외현적인 주어로 환원될 수 없으므로 표층 구조에서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

17)에서 PRO의 설정은 앞서 살펴보았던 NP2의 격과 의미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NP2에 해당하는 '我'가 격을 받기 위해 상승 이동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로 두 개의 의미역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TP의 시제 결손을 증명하지 못한 채 NP2의 비해석성 격 자질을 단정할 필요도 없다. PRO의 설정은 이러한 해석상의 이점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4.1에서는 PRO와 PRO를 인정받기 위한 VP의 비정형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복합 술어의 설정은 기능범주의 성격이 강한 사동사가 경동사로 설명되면서 다른 VP를 받아들여 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동사

패각 구조를 형성하여 사동사가 가지는 삼항의 논항을 이분지 구조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해석상의 장점을 가진다. 이를 위해 4.2에서는 중국어 사동표지사가 가지는 경동사적 자질의 점검을 통해 복합 술어 형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1. 통사 사동 구문의 PRO

통제 이론은 to부정사 구문에 PRO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인정하여 PRO의 통사적 기능이나 의미 해석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앞서 언급한 인상 구문과 통제 구문을 비교해보면 이들은 모두 부정사 구문을 보충어로 선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이에 대한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르다. 인상 구문의 경우 보충절의 주어 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주어 인상이 유발되고 인상 이후 보충절의 주어 위치에는 이동한 명사구의 흔적이 남게 된다. 명사구의 흔적 역시 공범주 원리(ECP)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충어의 주어 위치는 여전히 지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제 구문에서 보충절의 주어는 흔적이 아닌 PRO로 실현된다. 이 PRO는 이동하지 않는데 이는 중국어 통사 사동을 통제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Chomsky(1981:55)에 따르면 PRO는 비정형절 TP의 지정어 자리에 출현한다. 또한 PRO는 비지배(ungoverned)되어야 하고, 자신과 공지시(coreferential)되는 선행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비지배되어야 하는 것은 PRO가 의미역을 할당받기는 하지만 다른 논항과 달리 격이 할당되지 않는 위치에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8) Bill persuaded John_i [PRO_i to leave]

위 문장에서 PRO는 비정형절 TP의 지정어 자리에 있으며 'leave'로부터 행위자의 의미역을 할당받기는 하지만 격은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공지시되는 선행사 'John'을 가지므로 상술한 PRO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런

데 비지배되어야 하는데도 선행사를 가져야 한다면 지배 범주에 따른 결속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결속이 아닌 통제로서, 바꾸어 말해 PRO와 PRO의 선행사는 통제 이론에 따라 PRO가 선행사에 의해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⁸⁾ 그러나 PRO가 하나의 논항으로서 의미역을 받고 있는데 지배되지 않아서 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격과 의미역 관계에 있어서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이론에서는 이 PRO 역시 격을 가지는데, 그 격은 비한정(non-infinite) T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영격(Null Case)이라고 설명한다. 즉, 이 영격 역시 완전해석 원리⁹⁾에 따라 점검받아야 하는데 시제와 일치 자질이 결여된 부정사의 INFL에 의해 점검된다는 것이다.¹⁰⁾ 그렇다면 18)에서 PRO는 시제와 일치 자질이 결여된 to 부정사에 의해 격을 점검받으며 또한 'John'에 의해 통제되므로 상술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된다. 중국어 통사 사동 구문에서는 이 PRO가 아래와 같은 위치에 있다.

17') 這次事故讓我[PRO來到這裏]。

문제는 PRO가 비정형절의 지정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來到這裏'가 비정형절이어야 하는데 비굴절어로 형태적 요소가 결핍되어 있는 중국어 문장의 비정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형절과 비정형절의 구분은 해당 동사의 인칭과 시제가 주어에 따라 굴절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만일 굴절하였다면 그 동사

-
- 8) PRO는 대용사적 속성[+anaphoric]과 대명사적 속성[+pronominal]을 동시에 가지므로 지배범주에 의거한 결속 원리로는 PRO의 상반된 속성을 제대로 포착해낼 수 없다. 따라서 PRO는 결속이론보다는 통제 이론 내에서 그 지시적 관계가 다루어져 왔다.
- 9) 완전해석원리(Full Interpretation): 접합점(음성형태와 논리형태)의 모든 요소는 문법 외적 체계에 의해 해석될 수 있는 합법적 요소여야 한다.
- 10) '使(讓/叫)'가 통제구문을 형성할 때 PRO는 자신이 포함된 절 내에서 비해석성 자질을 점검하므로 상위 T의 탐침에는 무관하다.

가 선행하는 NP에 주격을 부여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동사가 격을 부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중국어의 정형절과 비정형절 구분 문제, 그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¹¹⁾ 본고는 중국어도 정형절과 비정형절의 구분이 있다는 데 동의하며, 영어나 한국어 사동 구문에서 VP가 비정형절로 실현된다는데 근거, 사동의 범언어적 특징에 따라 중국어의 통사 사동 구문의 VP 역시 비정형절을 취한다고 본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비정형절은 시제와 일치 자질이 결여된 부정사의 INFL이 아니며 추상적인 [+Tense]를 가지고 PRO의 격을 점검해준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시제와 일치 자질이 결여되어 있는 비정형절임에도 영격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견해와 달리) 모든 to 부정사가 일괄적으로 [-Tense]가 아니며 to부정사와 모문의 동사가 서로 다른 시간적 속성을 가질 경우 [+Tense]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9) a. Mary hopes [PRO to be a doctor]
 → Mary hopes she will be a doctor
 b. John believes [her to be a doctor]
 → John believes that she is a doctor

19a)에서 ‘hopes’는 현재시제지만 부정사절은 미래를 나타내는데 반해 19b)에서는 ‘believes’도 현재 시제를, 부정사절도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즉, 시제 자질을 나타내는 외현적인 형태 요소는 없지만 두 사건의 시

11) 중국어에도 정형절과 비정형절의 구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Li(1985)는 시제요소나 정태동사, 湯廷池(2000)는 PRO여부, 石毓智(2001)는 동작행위의 시간정보 표시를, 李梅(2003)는 將의 삽입으로 중국어의 정형절과 비정형절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장홍석(2010)은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중국어가 주어의 생략과 도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형절과 비정형절의 구분이 뚜렷한 pro탈락 언어와 그 특성을 같이 하며 스페인어나 이태리어와 같은 pro탈락 언어처럼 굴절소가 아닌 풍부한 어휘 범주의 요소들이 정형절과 비정형절의 구분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보았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장홍석a(2010)을 참고할 수 있다.

간접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비한정절의 [+Tense]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사 사동 구문의 사건은 사동 행위와 피사동 행위로 구성되며, 이들 역시 시간의 축에 놓고 볼 때 사동 행위는 언제나 피사동 행위에 선행한다. 그러므로 피사동 행위는 사동 행위가 나타내는 시간에 비해 미래 시간의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Martin(1996)은 PRO의 영격 점검과 관련하여 통제 구문의 부정사구는 가정적 미래 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또한 시간을 나타내는 운용자를 필요로 하는 행위적 서술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Tense]자질을 갖는다고 하였다.¹²⁾ 여기서 제안된 [+Tense]자질은 사동 구문에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

- 20) a. I made him leave.
 b. *I will make him leave **yesterday**.
 c. I made him leave later.
- 21) a. 내가 그를 떠나게 했다.
 b. *내가 그를 **어제** 떠나게 할 것이다.
 c. 내가 나중에 그를 떠나게 했다.

20b), 21b)가 비문인 것은 사동 행위가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피사동 행위는 이미 실현되었음을 나타내는 시제 운용소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c), 21c)의 경우 피사동 행위를 나타내는 구문에 실현되지 않은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운용소가 함께 쓰여 일종의 시제 자질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동 구문의 결과절에 해당하는 XP 역시 [+Tense]자질을 가지는 비정형절로 볼 수 있다. 중국어의 예를 보자.

- 22) a. 我讓他離開這裏。
 b. *我要讓他昨天離開了這裏。

12) Martin(1996); [+Tense] in control infinitivals seems to denote a 'hypothetical' future time interpreted with respect to some evaluation time. 정은경(2001: 53) 재인용.

c. 我讓他明天離開這裏了。

그런데 중국어 통사 사동 구문의 비한정절은 보다 많은 시제 운용소와 결합할 수 있다. 정은경(2001:54)은 사역구조의 비정형절은 대체로 독립된 행위적 서술어를 취하고 이 행위 변항은 시간적 운용자에 결속되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사동 행위를 나타내는 비정형절에 정형절의 특성인 시간사가 삽입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23) 這件事使他已經改變了觀點。

중국어에 정형/비정형의 구분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들을 구분하는 요소는 대체로 시제와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각주 11)참고) 그러나 23)처럼 시제 운용소가 개입된다고 해도 피사동 행위에 우선하는 사동 행위의 인지적 선행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각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시제 운용소들은 상술한 바와 같이 모두 사동 행위의 시제와 더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23') 這件事使他已經改變了觀點。

→ *이 일이 그가 이미 관점을 바꿨게 한다.

→ 이 일이 그가 이미 관점을 바꾸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了’가 ‘使’와 결합하지 못하고 후행하는 XP 내에 위치한다고 해도 그것은 사동 행위의 완성을 전제로 한 XP의 완성이다.

23'') 這件事使他改變了觀點。→ 이 일이 그가 관점을 바꾸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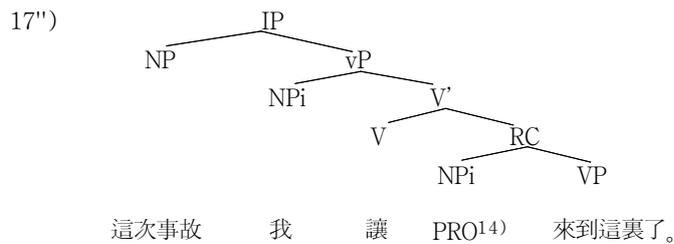
시대조사의 이러한 위치는 ‘使’가 가지는 기능사적 성격으로 인한 것으로¹³⁾ 그 자체가 완성이나 진행 등의 동태적 개념을 부여할 수 있는 동작

13) 동태조사 了가 使와 직접 결합하지 못하고 후행하는 결과절에 삽입되는 것은

이나 사건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조동사 역시 동태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데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정리하자면 중국어 통사 사동 구문의 VP는 비정형절로 명시어 위치에 해당하는 PRO를 가지며, 그 PRO는 비정형절의 [+Tense]에 의해 영격을 점검받게 된다. 이 때 [+Tense]는 사동행위와 피사동행위의 사건 발생 순서에 따른 ‘가정적 미래 시제’이며 비정형절에 등장하는 시제 운용소에 따른 것이 아니다. 비정형절의 시제 운용소는 사동 행위와 피사동 행위의 사건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동 행위와 결부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렇게 VP가 PRO를 가지고 구성되면 이 VP는 사동을 나타내는 경동사 v와 복합술어를 구성하게 된다.

2. 통사 사동의 복합술어

경동사 v가 복합술어를 이룬다고 가정할 때 문장의 기저 구조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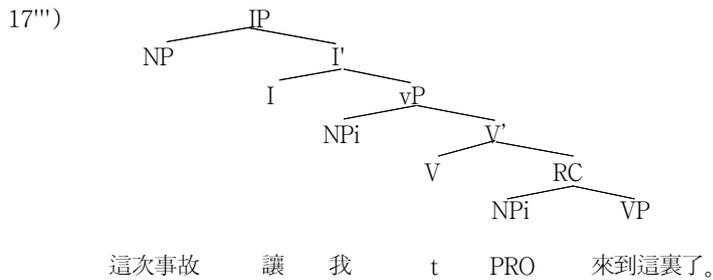


Huang(1992)의 분석대로 17")를 살펴보면 경동사 ‘讓’이 결과절 RC(來到這裏)를 선택하여 의미역(결과(result))을 표시하고, ‘讓’과 ‘來到這裏’의

사동 경동사 v와 VP가 하나의 통사적 단위로 묶여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14) Huang(1992)는 PRO와 pro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Pro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여전히 통제이론에 따라 PRO로 설명한다.

복합 형태 V'가 NPi '我'를 선택하여 의미역(대상(theme))을 표시한다. 다시 말해 '我'는 v+RC의 지정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vP는 주어 NP '這次事故'를 행위자로 의미역 표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 구조가 표층 구조에서도 동일할 수는 없는데 이 구조 내에서는 '我'와 '這次事故'가 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讓'은 IP의 핵인 I⁰의 위치가 비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V-to-I 핵이동(head-movement)을 함으로써 IP의 지정어에 주격을, '我'에 대격을 할당하게 된다.¹⁵⁾



'讓'과 결과절 RC를 v-VP의 복합 술어로 볼 수 있는 이유는 '讓'의 경동사적 자질에 있다. 중국어의 통사 사동을 구성하는 표지사 '使/讓/叫'은 문장의 핵어(head)역할을 하지만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독립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這次事故讓[來到這裏了] *這次事故讓[我]과 같은 예는 사동표지사가 통사적으로 혹은 의미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며 이로 '使'는 단독으로는 자신의 논항구조를 갖지 못하고 VP와 함께 완전한 술부를 구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어의 사동표지사 '使/讓/

15) 외현적인 격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我'가 대격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화 변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상기한 Chomsky(1975: 478~484)의 복합 술어 설정에서도 알 수 있으며, Huang(1992)도 Visser의 일반화를 들어 설명한다. Visser의 일반화는 목적어 통제 술어만이 수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동 구문에서도 마찬가지다.

那個夢使李四驚醒了。 → 李四被那個夢驚醒了。

‘叫’는 외현되는 경동사 v로 그 성질은 T(tense), C(Comp)와 더불어 핵심 기능 범주에 속하며 타동술어(transitive predicate)의 핵으로 VP를 보충어로 취한다는 것이다. 이 ‘使/讓/叫’는 최소이론에서 말하는 추상적 사역 경동사와 다른 성질의 경동사로, 비록 음성적으로 실현되기는 하나 기능범주로서의 성격이 강해 단독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VP와의 결합을 요구한다. 영어의 사동 동사 make도 이와 비슷한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make를 사동사로 보고 이를 사용한 사동 구문을 형태적 사동으로 볼 것인지 통사적 사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는데, 이는 경동사가 음성적으로 실현될 때 그 기능범주가 접어적 성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듯하다. Stowell(1991)은 이 [NP XP]가 하나의 구성 형태로 절을 이루느냐 아니면 XP가 모문의 동사 V와 결합하여 복합술어를 형성하느냐의 문제에 대해 [NP XP]는 심층 구조에서 하나의 구성소를 형성하지만 표면 구조 혹은 LF에서 이 XP가 모문의 동사 V와 재구조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유현경(2004:141)) 이는 NP가 의미상 주술관계를 이루지만 XP로부터 독립된 격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며 동시에 v-VP의 복합술어의 형성이 가능함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V. 마무리

중국어 통사 사동 구문의 논항은 그 통사적 형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격과 의미역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다. 기존의 여러 견해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통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경동사 복합 술어의 개념으로 통사 사동의 논항과 격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통제이론과 복합 술어 v-VP를 활용한 분석의 장점은 다른 형식의 사동 구문에도 적용할 수 있어 분석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使/(叫/讓)’의 사동표지사가 없는 구문은 외현되지 않는 사역 경동사가 이끄는 구문으로 볼 수 있는데, Chomsky(1995)는 경동사는 i) VP

를 보충어로 가지며 ii) 부정법 동사의 인상을 유발시켜 그 동사와 결합하며 iii) v-VP를 구성하여 외부 논항에 사역 역할을 가지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동사의 성질은 사동 표지사가 나타나지 않는 형식의 사동 구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端正’과 같은 형용사 검류의 사동 구문 또한 영형태의 경동사와 복합 술어를 형성하여 ‘[vP 哥哥 [v' [v ∅ [端正_i [VP [他的態度 t_i]]]]]’의 구조를 만들어 낸다. 즉,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동사 v가 ‘端正’을 유인하여 앞으로 이동하여 v(∅)-VP (端正) 복합 술어를 형성한 다음 ‘他的態度’에 대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중국어의 사동 표현이 ‘把字句’나 ‘V-RC’ 등 더욱 다양하게 실현됨을 고려할 때 이들 구문에서도 본고의 제안이 동일한 해석 기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김기혁, <사동구성의 긴밀성과 피사동자 격 표시>, 《한글》 283, 2009.
 김중복·양재형, <조동사 복합술어 구문 분석 및 전산학적 구현>, 《語學研究》 40(1), 2004.
 박정구, <방향동사의 복합 술어 형성시의 논항구조 설정 및 논항 분포의 원리와 조건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19, 2004.
 유현경, <국어 소절(Small Clause) 구성의 복합 술어 분석>, 《국어학》 44, 2004.
 장홍석a, <중국어의 정형(finite)절 연구>, 《中國語文論叢》 44, 2010.
 장홍석b, <현대 중국어 ECM 현상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26, 2010.
 정은경, <사역구조의 최소주의 이론적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1.
 李 梅, <從現代漢語角度考察功能語類一時態的設立>, 《現代外語》 1期, 2003.

- 李 青, <現代漢語兼語句與英語的ECM現象對比研究>, 《考試周刊》 3期, 2009.
- 石毓智, <漢語的限定動詞和非限定動詞之別>, 《世界漢語教學》 2期, 2001.
- 譚 娟, <漢語兼語句中的ECM現象>, 《現代語文》 5期, 2009.
- 湯廷池, <漢語的限定子句與非限定子句>, 《LANGUAGE AND LINGUISTICS》 1.1. 2000.
- 楊大然, <現代漢語使動結構的ECM現象研究>, 《現代外語》 4期, 2003.
- Chomsky, N. *The Logical Structure of Linguistic Theory*, Plenum Press, 1975.
- Chomsky, 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1981.
- Chomsky, N. *Knowledge of Language*, 1986, 이선우 역, 《언어에 대한 지식》, 민음사, 1990.
- Chomsky, N.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 MIT Press, 1995.
- Chomsky, N.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Cambridge, Mass: MIT Press, 2000.
- C. -T. James Huang, <Complex Predicates in Control>, 1992, 이창호 역, <통제 이론 하의 복합 술어 1> 《中國語文論譯叢刊》 6, 2000.
- C. -T. James Huang, <Complex Predicates in Control>, 1992, 이창호 역, <통제 이론 하의 복합 술어 2> 《中國語文論譯叢刊》 7, 2001.
- Li. Y.-H. Audrey, *Abstract Case in Chinese*, USC PhD dissertation, 1985.
- Postal, Paul M.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1974.

Stowell, T.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1981.

<中文提要>

漢語使字句(NP1+使+NP2+VP)的論元結構分析以被使役者的論元和格問題為主。作為使役行為的對象，也作為被使役行為的主體，被使役者為兼語句結構分析而作核心。按照NP2的語法上地位(包括格和題元角色)，漢語使字句的論元結構可分為如下的兩種；‘使(/讓/叫):<施事, 命題>’, ‘使(/讓/叫):<施事, 受事, 命題>’。在漢語使字句的論元結構為2)的前提下，本稿提議使役標誌‘使(/讓/叫)’和VP構成複合謂語(complex predicate)而給NP2賦予賓格。Chomsky(1986)也主張NP2在使役句的結構內不是和VP構成一個形式而是v-VP複合謂語的賓語。被使役行為的VP雖與被使役者形成主謂關係，但在語法關係上，與使役詞V的關係更密切。所以它先與V構成複合謂語，然後取NP2為賓語。

Key Words : 통사 사동(syntactic causative),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 격(case), 통제이론(theory of control), 복합 술어(complex predicate), PRO